

대림산업 친환경·저에너지 비전(Vision) 선포



대림산업이 2012년까지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최소화한 '에코 3리터 하우스(ECO-3L House) 개발 완료' 라는 친환경·저에너지 비전(Vision)을 대덕 연구 단지 내 건축환경연구소에서 선포했다. 에코 3리터 하우스는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열, 빛,

소리, 공기 질 등의 요인들을 제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친환경·저에너지 건축 기술들이 적용된 에너지 자립형 주택 기술의 집약체다. 에코 3리터 하우스 기술을 완벽하게 적용할 경우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 제로(Zero)를 뛰어넘어 자체 생산한 전기를 한국전력에 되팔아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을 마이너스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

대림산업은 올해 4월 분양한 울산 유곡 e-편한세상을 비롯해 앞으로 분양하는 모든 확장형 아파트를 냉난방 에너지가 30%까지 절감되는 초에너지 절약형으로 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식경제부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에너지 절감 비율이 33.5% 이상인 단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에너지 효율 1등급' 아파트의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더불어 2010년부터는 냉난방 에너지 50% 절감 아파트를 완전 상용화할 계획이다. 대림산업은 대내외적으로 초에너지 절약 공동주택을 '미래 핵심 가치 기술'로 천명하고, 2012년까지 열환경, 빛환경, 소음 진동, 수처리, 실내 공기 질, 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박사급 인력과 사업 본부 내 전략 TF 인원 등 평균 30여 명을 투입해 에코 3리터 하우스 기술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삼성물산 건설부문, 2008 사진/ UCC 공모전 개최



삼성물산 건설부문을 '글로벌 퓨처마크 열정 드림(Dreami)' 라는 제목의 '2008 삼성물산 사진/ UCC 공모전' 을 7월 1일부터 31일까지 개최한다. 사진과 UCC 부문으로 나눠 '젊음+열정이 글로벌 이정표를 만든다' 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공모전은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부문별 수상자 3개 팀에게는 버즈 두바이 탐방 기회가 주어지고, 버즈두바이 출사/ UCC 제작을 통한 2차 심사를 거쳐 금·은·동상에게 총 200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현대건설, '아파트 생활 사연 공모전'



현대건설이 공동 주택 생활 문화 개선을 위해 아파트 생활 사연 공모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이웃을 배려하는 당신' 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연 공모 이벤트는 고객들이 아파트에서 생활하면서 이웃과 겪었던 다양한 이야기를 수기 형태로 보내면 된다.

이번 '아파트 생활 속 사연 공모' 이벤트는 8월 8일(금)까지 진행되며, 감동과 웃음, 지혜가 담긴 사연을 뽑아 대상 1명에게는 150만 원의 상금을, 최우수상 2명에게는 100만 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이외에도 다양한 상품이 마련되어 있다.

이번 사연 공모 이벤트는 지난 5월 말부터 건설 업계 최

초로 진행 중인 공동 주택 생활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 '힐스 에티켓(Hill's Etiquette)' 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대건설은 이번 이벤트를 비롯해 힐스 에티켓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며, 향후 입주민들과 함께 문화·의식·라이프스타일을 만들어가고, 궁극적으로 힐스테이트가 꿈꾸는 고품격 선진 주거 문화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화성산업, '사진·수기 공모전'

화성산업이 올해로 창업 50주년을 맞아 '사진·수기 공모전'을 연다고 밝혔다. 화성산업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에서는 '화성·동아 50년' 이라는 주제로 건설 또는 유통과 관련된 내용의 작품을 사진과 수기 두 부문으로 구분해 20일까지 접수받는다.

출품작 규격은 사진의 경우 11×14인치 이상 크기의 인화 작품이고, 수기는 200자 원고지 20~30장 또는 A4 용지 3~4장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출품 양식을 내려 받으면 된다. 총 상금은 2천만 원으로 대상, 금상, 은상 등 시상 내역별로 300만~10만 원이 상패와 함께 주어진다.

GS건설, 독거 노인 초청 문화 행사 가져



GS건설에서는 매주 부산 시민과 자이 입주민을 위해 음악회, 전시회, 브런치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했다. GS건설은 지난 26일, 연산동 자이갤러리에서 연세구청과 함께 인근 독거 노인 150여 명을 초청해 효도 잔치 공연과 사랑의 선물을 전달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는 평상시 문화 활동을 접하고 싶어도 접하지 못하셨던 독거 노인들을 위해 문화를 함께 향유하고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위로하는 자리가 됐다. GS건설의 최형동 연산동 자이갤러리 관리소장은 "앞으로도 GS건설은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독거 노인뿐 아니라 소녀 소년 가장 등 소외받는 이들을 위해 다양한 문화 행사 및 자원 봉사를 더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건설, '제회 환경 사랑 학교' 실시



친환경 사회 공헌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SK건설이 최근 'DMZ 생태계 보전 활동'의 일환으로 '제회 어린이 환경 사랑 학교' 행사를 실시했다. SK건설은 2006년부터 '어린이 환경 사랑 체험 활동'을 통해 DMZ 생태계 보전 활동에 참여하며 후원해오고 있다. DMZ 생태계 보전 활동은 환경운동연합이 펼치고 있는

것으로, 'DMZ 깃대종 10 보전 캠페인'을 중심으로 'DMZ 깃대종 생태 기행', 'DMZ 생태 도감 제작' 등 시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있다.

어린이 환경 사랑 학교는 어린이들의 환경 의식을 고취시키고 자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SK건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마련한 생태 체험 교육으로, 2006년부터 진행한 '어린이 환경 사랑 체험 활동'을 더욱 알차고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해 재편한 것이다. 수도권 지역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매년 2회(4차/회)씩 정기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